

출 장 보 고 서

- ☐ 출 장 자 : KIEP 원장 채욱
- ☐ 출장종류 : 중국발전포럼(China Development Forum) 참석
- ☐ 출장기간 : 2012.3.16~2012.3.20 (4박 5일 총 5일간)
- ☐ 출장지 : 중국 베이징
- ☐ 출장목적 : 중국발전포럼(China Development Forum) 2012
참석
- ☐ 출장 중 수행업무
 - * 중국발전포럼(China Development Forum) 2012 참석
 - 주제 : "Macro-stabilization and Economic Restructuring"
 - 양회(전인대 및 정협) 종료후 개최되는 국제회의
 - 각 부처장 및 국제석학들이 참석하여 정책의 주요 내용과 집행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
- ☐ 주요조사내용
 - 중국발전포럼(China Development Forum) 과 관련된 내용 사전 조사
 - 중국 정부의 올해 정책방향과 차세대 5세대 지도부의 경제 전략 방향 파악
 -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 체제개혁, 구조조정에 관한 중국 정부의 고민과 세계 석학들의 조언, 토론
- ☐ 출장 스케줄

일 정	행 선 지	활 동 사 항	비 고
3.16	서울-베이징	이동	
3.17	베이징	포럼 참가	
3.18	베이징	포럼 참가	
3.19	베이징	포럼 참가	
3.20	베이징-서울	이동	

<첨부자료 1>

China Development Forum 2012

I. Economic Summit

1. 글로벌 경제 : 장기적인 경기침체 리스크
2. Parallel Session 1 : 12 규획의 회고
3. 오찬 :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
4. Parallel Session 2 :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4
5. Parallel Session 3 : 부동산 딜레마와 해결책 4
6. Parallel Session 4 : 사회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 4
7. 환영 연회 4

II. China and the World : Macro-stabilization and Economic Restructuring

1. Session 1 : Opening Ceremony 7
2. Session 2 : 지속가능한 성장, 인플레이션 억제, 경제구조조정 7
3. Session 3 : 거시정책의 향상과 재정개혁 심화 9
4. 오찬
5. Session 4 : 내외적인 균형성장 추구 11
6. Session 5 : 새로운 성장으로 기술혁신 추구 11
1. Dialogue 1 : 산업 업그레이드, 혁신 시스템과 지적재산권 보호 14
2. Dialogue 2 : 녹색성장 로드맵 17
3. Dialogue 3 : 지역협력 강화, 발전을 위한 협력 촉진 17

I . Economic Summit

1. 글로벌 경제 : 장기적인 경기침체 리스크

1) Liu He (중국 발전연구기금회 부주임)

- 중국 경제는 성공적인 개혁개방 모델로 시장중심이며 정부가 큰 역할을 했음. 중국경제의 전환은 중국과 세계경제의 커다란 수요와 시장을 창출했으며 이는 중국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게 함.
- 중국경제는 향후 공업화, 도시화, 국제화, 정보화를 추구해야 함. 첫째, 공업화는 전통제조업의 자원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인력자원이나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짐. 둘째, 도시화는 작년에 처음으로 도시인구가 농업인구를 초과하면서 거대한 소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셋째, 국제화는 비교적 큰 변화를 가지고 와서 시장화 과정중에 있으며 개혁은 좀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함. 넷째, 정보 투명화와 혁신은 중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전환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것임.

2) Ma jiantang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

- 중국 경제는 작년부터 성장속도가 떨어지면서 1) 구조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2) 제한적인 요소가 증가했으며 3) 구조를 전환해야 함.
- 도시화, 공업화, 시장화, 국제화는 중국경제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요소임.
- 도시화는 연 0.83%로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도시화율이 66%인것에 비하면 중국의 도시화율은 50% 내외로 아직 도시화의 여지가 큼. 따라서 소비도 증대될 것이나 환경오염도 심각해질 전망이다. 공업화는 35%로 아직 낮은 편이며 동부와 중,서부 제조업 비율이나 공업화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 시장화는 경제자유도는 현재 낮은 편이나 점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임. 국제화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할 것임. 그러나, 경제구조 조정으로 안정된 경제발전을 추구.

3) Michael Boskin (Stanford University)

-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믿음이 있음. 글로벌 경제는 재정과

금융방면에 많은 리스크가 존재해서 중장기적으로 많은 도전과제들이 있음.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낮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은 비교적 높음.

- 유럽과 미국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채무 증가가 회복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임.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정치시스템이 가져오는 리스크와 2차 위기를 피해야 할 것임.

4) Stephen Roach (Yale University)

- 과거 30년동안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은 심화됨. 선진국들의 경제가 글로벌 경제 소비의 70%를 차지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함.
- 중국경제가 경착륙에 빠질 것이라는 견해는 중국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며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는 틀린 것으로 생각함.
- 중국이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미국, 유럽, 일본등 선진국들의 과다한 소비에 의존한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임. 중국 정부가 이런 리스크를 인식하고 12.5 계획에서 내수확대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림.
- 원자바오 총리가 5년전에 중국경제의 불균형 성장을 지적했으며 과거 30년 동안 세계경제에서 발생한 11차례의 위기가 모두 불균형에 따른 것임. 중국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우려해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구입제한정책도 중국경제가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증거임.
- 미국의 소비가 GDP의 71%로 과거 65%보다 높으며 이는 미국 소비자들의 소득증가가 아니라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자산 버블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은 없음.
- 세계경제가 30년 전보다는 균형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

5) Lord Nicholas Ster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중국은 금융위기전 재정상황이 양호해서 금융위기가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수 있었음. 개인적으로 90년대의 재정개혁이 현재의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앞으로는 자원배분, 환경오염등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함. 태양광 산업, Solar pv, 전기 자동차등과 같은 새로운

공업개혁을 실시해야 함. 혁신, 투자, 금융 특히 민간투자를 촉진해야 하며 기후변화에도 대비해야 함.

6) Martin Wolf (Financial Times)

- 현재 선진국들의 목표는 경기후퇴를 방지하는 것이며 이는 저성장을 의미하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국가들은 모두 정상적자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었으며 금융위기 발생전의 경제성장방식도 지속가능한 성장방식이 아니었음

2. Parallel Session 1 : 12 규획의 회고

1) Wu JingLian (국무원 연구중심)

- 12.5 규획 원년에 경제발전 방식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투입과 비용이 지나치게 높음. 주된 원인은 혁신과 창업에 유리한 체제가 구축되지 않아서 지역마다 정부가 주도한 발전방식을 답습하기 때문임. 해결방법으로는 최상위층의 설계 강화를 지목하며 정부와 시장 관계조정을 주문
- 중앙정부가 2010년 말 상부 설계를 강화해서 중점분야와 핵심부문에서 성과를 거둘 것을 제기한 후 금융과 재정/조세 부문 등에서 모두 상부 설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설계를 추진하기보다는 설계를 통해서 무엇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가라는 발전방식문제부터 해결해야 함.
- 수년간 일부 지방에서 큰 정부, 강한 국유기업방식을 급성장을 이룩했지만 덮어놓았던 문제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

2) Qian Yingyi (칭화대학교)

- 중국 구조조정이 어려운 근본원인은 제도적 어려움과 도전과 장벽에 있음. 앞으로 심층 개혁을 통해 정부와 개인, 기업, 시장의 관계를 조정하고 재정개혁을 철저하게 단행해야만 비로소 구조조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

3. 오찬 :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

1) Nouriel Roubini (NYU 교수)

-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 그러나 빠른 경제구조조정을 통해서 GDP 대비 소비 비중을 확대하면 경착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중국정부는 일찍이 국내소비 진작책을 추구했으나 과거 5년간 GDP 대비 소비 비중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함. 중국의 GDP 대비 고정자산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50%를 초과
- 투자 위주의 성장방식을 취한 국가들은 모두 경제위기를 맞이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함. 현재 중국의 수출과 투자가 하락중임.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 모두 침체되고, 중국의 고속철도 투자도 감소하고 지방정부의 토지수입도 감소함. 결국 감소한 투자만큼 소비가 확대되지 않으면 경착륙이 발생(단, 올해는 아니며 몇 년후 발생할 가능성 있음)
- 불완전한 사회보장시스템, 인구 노령화, 평가절하된 환율에 의한 무역흑자 등을 높은 저축율과 더불어서 내수확대의 장애물로 지적

2) Arvind Subramanian(Peterson 연구소)

- 중국경제가 경착륙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의 정책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함. 12.5 계획 기간내에 7%의 경제성장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함. 중국이 직면한 인구 노령화의 문제는 반드시 리스크를 가져오지 않으며 앞으로 20년동안 중국은 계속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최소 6.0%이상)
- 장기적으로 보면, 위안화 국제화도 실현되고 기축통화가 될 것으로 예측함. 경제와 무역의 규모, 대외적인 영향력으로 판단할 때에 2030년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발전할 것으로 예상함.

4. Parallel Session 2 :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1) Han WenXiu (Research Office of the State Council)

- 제조업은 경제번영의 기본임. 제조업의 발전은 저비용 추구에 그치지 않고 신기술 개발로 그 한계성을 돌파하고 공급망 관리를 통해 생산율을 높여야 함

2) Xu Lejiang (Baosteel Group)

-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고 부의 축적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음. 부의 축적은 제조업과 같은 실질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미국의 '제조업으로 회귀' 제의는 제조업이 경제 발전의 주요 촉매제라는 반증
- 중국 제조업 주력방안은 혁신능력 제고, 산업망 종합능력을 제고, 브랜드 개발, 제조업에서의 노동요소를 중시

3) Leif Johansson (Ericsson Group)

-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함.
- 에보닉 산업 (Evonik Industries)은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 현지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인력개발을 중시하는 투자전략을 펼침. 기술의 발전이 제조업을 주도함. 중국 제조업은 연구 개발과 공급망 관리를 통해 성장해야 함

4) Klaus Engel (Evonik Industries AG)

- 서비스중심 경제의 성공은 건강한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독일은 공업화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로 공업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했음.
- 중국은 현재 공업화로 들어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공업화 수준향상에 따라 경제번영을 촉진할 것임

5. Parallel Session 3 : 부동산 딜레마와 해결책 4

1) Lesley Knox (Grosvenor Group)

- 부동산은 금융자산, 경제성장의 조력자, 수입창출원, 복지의 종합체이며, 불안정한 거시경제 상황은 부동산산업을 악화시킴
- 전세계적 관점에서 금융시장은 부동산 시장 발전의 중요 요소로서 GDP에서의 부동산시장은 일시적으로 정부 이익창출을 하지만 거시경제에서는 소

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임

- 연이은 부동산가격 하락세는 은행 자산부채표에 영향을 주어 투자자 자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Jiang Weiping (BBMG Corporation)

- 부동산은 이미 중국경제의 지표로 부동산정책은 시장 논리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이미 발전추세에 접어들어 정책통제에 융통성을 발휘하여야 함
- 부동산 딜레마는 매매제한 정책이 야기한 것으로 보장성과 시장화의 균형이 요구됨. 정부는 안정성을 도모하는 주택보장 신용우대정책을 연구 개발하여야 함
- 향후 1~2년 내에 주택보장 건설이 정점에 다다르고 주택산업화의 유리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

3) Junichi Ujiie (Nomura Holdings Inc.)

- 당초, 일본 정부는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협력을 통해 국내경제와 달러화 안정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이 일본 국내수요 촉진을 호소하여 일본정부는 거시적인 화폐정책과 긴축정책정책을 실시함
- 이 긴축재정정책이 정부채권발행 부족을 야기하고 대량의 은행 자산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잠재적 위기를 발생시킴. 당시 일본의 은행은 부동산가격 상승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음
-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느장 대응으로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거품현상이 심화되었음
- 북경 부동산가격수입은 동경에 비교하여 20배를 초과하고 동경 최대치의 8배를 초과하고 있음. 중국의 은행시스템이 부동산산업 발전 중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불평등한 정책은 부동산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동산산업 대출상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위기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Ba Shusong (DRC)

- 향후 중국은 더 많은 대도시 형성이 예상되며 부동산 분배방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분산은 산업 집중화와 세분화를 높임.
- 2008년과 2009년의 대출금이 만기되는 올해, 부동산 금융사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 더불어 올해는 신용대출의 정점으로 소비동향의 큰 변화가 없는 한, 부동산 금융이 대폭 발전할 것임
- 부동산구역분화로 중서부지구의 매매가 증가하고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주택의 개발공간과 상업부동산이 성장하여 고속발전기에 진입하였음

6. Parallel Session 4 : 사회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

1) Bernd Eisenblatter (Chairman of the management Board)

- 독일의 예로, 사회복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고학력 인구구조 형성, 사회변환기의 소외계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독일은 지속적인 미래발전을 위한 로드 맵을 구상하고 소외계층에 더 나은, 더 평등한 사회복지와 교육시스템을 제공하여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
- 중국은 통일성 있고 전면적이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신뢰할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설립이 요구됨.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지제도를 개선하며 수입 재분배를 통해 합리적인 복지 제도를 설립하여야 함

2) Francios Bourguignon (Paris School of Economics)

- 사회보장제도의 목표: 경제 곤란인구와 소외계층의 취약점 보완
- 사회보장제도의 요소: 사회보장은 경제의 성장 감퇴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3) Li Shi (사회과학원)

- 농민공의 사회보장 주요문제는 저조한 보장범위, 낮은 보장수준, 높은 납부 부담,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한 사회보장 시스템, 사회보장의 지연임.
- 불합리한 제도설계가 원인으로 제 12차 5개년 계획에서 개혁방안에 대한

사안이 고려되어야 함

- 농민공과 기업을 고려한 전면적인 농민공 사회보장제도의 실시가 요구됨. 농민공 사회보장 제도는 중소도시노동력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르지만 각성의 제도와는 일치하는 독립된 체계로 전국에서 양로보험, 의료보험을 누리며 유동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7. 환영연회

1) 상푸린(尙福林,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

- 근래의 금융위기와 채무위기는 시장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었지만 신흥경제는 이에 대비하여 견고한 은행 체계 구조를 조성했음. 중국의 은행업은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고 미약한 금융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신용규모의 합리적 성장과 균형적인 투자, 은행 대출량 확보로 비실질경제의 과도팽창을 예방하여야 함. 또한 農信社개혁을 통해 새로운 농촌금융기구를 양성해야 함. 중국 은행감독 관리 위원회가 소규모 기업대출을 감독하고 신 금융상품의 개발을 촉진할 것임
- 안정된 은행시스템을 위해 국제 금융감독관리위원회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어 중국은 곧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바젤협약에 따라 자본, 리스크, 유동성을 염두에 둔 신자본 표준을 실시할 것임. 중국 은행 감독관리 위원회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올해 이와 관련된 표준을 정식 실시함.
- 현재 경제발전의 불확실성 요소가 증가하여 관리당국은 리스크 확산과 시스템 문제 방지에 주력하고 있음
-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 위원회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완벽성을 위해 각 관리 항목을 점검하고 리스크 방지를 위해 리스크 관측 정보체계 건설을 촉진해야함

2) 씨양권보(项俊波,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 중국은 새로운 부흥을 위한 단계에 있고 현존하는 문제점이 중국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중국경제는 기업경영에서 염가의 노동력자원을 바탕으로 한 이익창출이 줄어들에 따라 새로운 이익 창출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중국의 경제규모는 금융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 주었지만 중국금융업은 구조체계, 시장의 심도, 금융혁신, 인적자원 부문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지난 십년간 금융업은 관념, 제도, 기술방면의 개혁을 하였고 향후 십년 간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임.
- 중국 보험업은 향후 10~20년은 보험업의 황금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GDP 500\$~ 1000\$ 사이의 나라들은 보험업의 빠른 발전을 보여 왔고 중국이 이 단계에 접어들었음. 현재 중국의 금융체계는 은행위주로 은행이 90%이상을 차지하고 보험업은 5%에 지나지 않음. 향후에 노후를 위한 저축예금이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의 보험업 구조를 따를 것임

3) 야오강(姚刚,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

- 최근 중국주식시장은 시장규율과 국정에 알맞은 노선을 채택하여 자본시장 서비스 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현재 상장된 주식회사는 2000개가 넘고 시가총액은 전 세계 3위를 차지함. 중국의 주식시장은 이미 주 거래소, 장외시장 그리고 그 하위시장 구조를 형성하였음
- 중국 대기업은 모두 상장하였고 중소기업들이 그 뒤를 잇고 있음. 법인 투자자가 2005년 30%에서 현재 70%까지 증가했음. 중국 자본시장의 대외성과는 합자증권기업 13곳, 합자기금기업 39곳, QFII 자격 150곳임.
- 중국은 직접금융자본체계, 증권금융자본, 중소기업의 서비스 역량,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함. 증권시장 개혁, 증권시장 규모 확대, 자본시장 대외개방 추진이 요구됨

1. Session 1 : Opening Ceremony

1) Li wei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주임)

- 중국과 세계는 이미 불가분의 관계임. 중국의 장기적인 거시경제 정책은 경제구조 재조정임.
- 중국개발포럼은 이미 13년동안 개최하면서 크게 성장했고 중국은 세계와의 협력이 필요함. 그래서, 올해는 [중국과 세계 : 거시경제정책 및 경제구조 조정]이란 주제로 개최함. 포럼이 성공하기를 기원함.

2) Andrew N.Liveris (CEO, Dow Chemical Company)

- 중국은 세계 최대 노동공급국가이면서 최대 소비시장이며 지난 30년동안 놀랄만한 성장을 해옴. 중국은 이미 21세기에 중요한 경제주체가 되었음. 2030년에 중국은 고소비국가, 경제대국이 될 것임
- 중국이 직면한 문제중 하나는 소득재분배 문제이며 이를 중서부 개발로 해결하려고 함. 기업의 입장에서선 앞으로 경제성장을 외국기업과 함께 했으면 좋겠음.
- 중국기업과 함께 혁신을 위해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간의 믿음과 공동의 이익이 필요함. 중국과 다른 경제주체와의 협력이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하는 길임.

3) Christine Lagarde (IMF 총재)

- 현재 세계경제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으며 활력이 넘치는 미국 경제지표와 유럽의 그리스 2차 구제금융조치를 그 이유로 들고 있음.
- 그러나, 앞으로 많은 도전들이 있으며 개혁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함. 여전히 운신의 폭은 제한되어 있고 정책적 실수를 할 여유도 없으며 글로벌 경제의 3가지 리스크를 제시함. 1) 과도하게 높은 선진국 공공,민간 부채 부실화에 대한 취약한 금융시스템 2) 고유가 3) 신흥경제활력의 둔화임.
- 중국이 글로벌 리더쉽을 보여야 한다고 계속 강조함.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와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견인형으로 전환해야 함. 그리고 민생개선에 힘써야 하며,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12.5 규획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4) Li Keqiang (부총리)

- 안전 속 발전을 도모하고 내수 확대에 입각해서 혁신을 강화하며 개혁개방에 의존해서 발전방식 전화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경제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야 함.
- 현재 세계경제 회복과 성장 전망이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요소가 많음. 12.5 규획의 요구와 정부업무보고서의 계획에 따라 안정 속 발전을 도모하는 총기조를 견지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과 물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방식 전환, 개혁개방 심화, 민생 보장 및 개선에서 새로운 진전을 거두도록 힘써야 함.
- 경제 발전방식 전환에 박차를 가해서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빠르게 발전하도록 촉진하려면 경제 구조조정에 주력하고 내수 확대에 전략적 기반을 두어야 함.
- 도시화는 내수 확대의 최대 잠재력이며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산업화와 도시화와 농업 현대화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3화 병행을 실행하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해야 함.
- 또한 서비스업 발전을 내수 확대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두어서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발전수준을 제고하고 내수 확대와 민생 개선을 잘 결합해야 함.
- 중국 개혁은 난관을 돌파하는 시기에 접어 들었고 재정/조세, 금융, 기업, 가격, 소득분배제도 등 측면의 개혁을 심화하고 중점 분야와 핵심 부문에서 진전을 거두어 시장의 자위배분 역할을 확대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체제/메커니즘적 장애를 없애며 발전의 내생동력을 키워야 함.
- 중국의 내수 확대와 구조조정은 대외개방이 전제되어야 하며 수출입무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외자 이용과 대외투자방식을 혁신해서 모든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벌이여 함께 발전하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함.

2. Session 2 : 지속가능한 성장, 인플레이션 억제, 경제구조조정

1) Zhang Ping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올해 중국의 GDP 성장 목표는 7.5%, CPI 통제목표는 4%임.
- 중국경제는 불균형, 부조화, 지속 불가능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속도, 물

가, 구조 사이의 균형을 잡는 데에도 많은 걸림돌이 존재함. 예를 들면 현재 전 세계 유동성이 넘쳐나고 국제시장 벌크스톡(Bulk Stock)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요동치는 가운데 중국의 일부 농산물은 장기적으로 가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

- 경기 하강 압력과 물가 상승 압력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란 쉽지 않음. 현재 물가수준이 정상화 추세를 보이지만 조금도 경계를 늦추거나 방심해서는 안됨.
- 최근 각 부처/위원회는 '신36조'를 적극 실행에 옮기고 있음. 민간자본의 금융, 에너지 등 분야 진입에 대한 지원 입장을 재천명함. 올해 투자를 민생 분야로 한층 더 치중해 보장형 비영리성 주택 건설 프로젝트, 삼농(농민/농촌/농업), 에너지절약/온실가스배출감소, 자주혁신, 사회사업 등 분야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시장 진입기준 완화를 핵심으로 보다 목표성과 실효성 있는 장려정책을 실시해 민간자본의 철도, 시정(市政), 금융, 에너지, 통신, 교육, 의료 등 분야 진입을 지원할 것임.
- 올해 정부는 도/농 주민 소득을 한층 더 증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한층 더 보장해 서민들이 여유롭고 과감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서민들이 기꺼이 소비하도록 소비 장려를 위한 재정/세무, 금융 등 정책과 조치를 시행하고 소비의 편의를 돕기 위해 소비 환경과 여건을 개선할 것임.

2) Joseph Stiglitz (Columbia University)

- GDP만이 반드시 경제성장의 지표가 아니라 다른 수치들도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미 경제 재구조중이라고 생각
- 몇가지 경제 재구조 정책 제안을 하자면, 1) R&D, 교육, 의료정책중 정부가 전부 통제할 수 없으니 중소기업이나 민간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어야 함. 2) 새로운 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하여 개혁을 진행시켜 나가야 함.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정책등이 필요 4) 재정개혁이 필요하고 환경, 에너지 오염세등이 신설되어야 함.
-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역할,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공평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경제성장과 공정한 기회를 촉진한다고 주장함.

3. Session 3 : 거시정책의 향상과 재정개혁 심화

1) Xie Xuren (재정부장)

- 올해 12.5 규획에 따라서 재정체계, 예산관리 체제, 세수제도의 개혁을 심화하여 중국의 재정과 세무 제도를 강화하여 경제성장을 이끌 것임.
- 구조적인 감세, 국민 소비능력 향상, 농민, 농업, 농촌 등 3농 지원 확대, 과학, 신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제시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 전환, 시범지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환경보호 세금과 비용의 개혁에 재정부, 국세총국, 환경부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임.

2) Haruhiko Kuroda (ADB 총재)

- 작년에 중국 9.2%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했음. 현재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재조정정책을 실시하려 함. 1) 현재의 자본주도의 발전방식에서 내수로 전환해야 함. 그리고 소득재분배, 또한 인구노령화와 환경오염등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함. 내수확대를 위해서 공공지출이나 사회발전, 연금, 의료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2) 재정개혁을 촉진해야 함. 또한 중앙정부가 비교적 가난한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책임관계도 새롭게 설정해야 함.

5. 오찬

1) Christine Lagarde (IMF 총재)

- 선진국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중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1) 지속적으로 성장을 추구 2) 경제성장 동력을 투자,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 3) 부의 적절한 분배를 제시

2) Sri Mulyani Indrawati (세계은행 이사)

- 중국경제가 앞으로 발전 과정에 있어 정부 대책이 부족할 경우 중등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와 서비스의 질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독 시스템을 체계화해 나가야 함.

5. Session 4 : 내외적인 균형성장 추구

1) Chen Deming (상무부장)

- 통화정책과 무역정책은 별개의 문제임. 만일 미국이 위안화 환율 문제로 중국에 무역 제재를 가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음. 위안화는 절대로 낮게 평가되어 있지 않으며 3월에도 무역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함.
-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을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인한 세계불균형으로 돌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편협한 생각임.
- 중국의 경제발전은 다른 국가와의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누려왔음. 중국은 기초 원자재의 수입으로 관련 국가들의 발전을 이끌었고 주변 국가 및 지역에 무역흑자를 창출했으며 자본품과 사치품과 서비스 무역 수입을 통해 선진국에 고용을 창출함.
- 중국과 미국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야 함
- 미국은 국가안전이라는 이유로 2400여종의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서비스업 개방 문제에서는 중국 측만 개방하면 안 되고 다른 국가 역시 관련부분 서비스업을 개방해야 함.

2) Michael Boskin (Stanford University)

- 중국은 경제구조전환중 위험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유가상승, 은행문제, 채무위기등이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선진국들도 가지고 있는 문제들임.
- 내수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국유기업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주도해야 함. 또한 금융, 은행, 보험 등을 개방해야 함.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도 강화시켜야 함. 인구 노령화 문제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에너지 문제도 추후 중요하게 대두될 것임.
- 중미관계, 특히 미국의 적자를 양국이 아닌 글로벌 기준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은 소비가 낮고 저축이 높음. GDP 대비 소비의 비중이 35%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낮음. 중국의 노령화는 향후 저축, 투자, 공공 정책, 사회보장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임.

6. Session 5 : 새로운 성장으로 기술혁신 추구

1) Wan Gang (과학기술부장)

- 중국의 R&D 지출은 매년 20%이상 증가했고, 작년에 연구개발 지출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4%임. 중국의 특허량은 세계 3위를 차지
- 1) 과학기술 자원이 증가하고 있음. 중국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매년 20%씩 증가함. 2008년 4616억위안에서 2011년 8610억위안으로 증가했고, R&D 대비 GDP 비중도 1.54%에서 1.83%로 상승함. 연구개발 지출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4%임
- 2) 과학기술 생산량도 큰 폭으로 증가함. 과학기술 논문량은 세계 2위이며, 인용논문수도 세계 7위임. 특허는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음. 전국 기술교역시장도 4764억위안에 달하면서 22%가 증가함.
- 3) 과학기술이 신흥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서 첨단기술산업의 생산가치가 8.8조위안이며 수출이 5490억위안로 증가율도 10%이상임.
- 4) 88개의 과학기술개발구도 2011년 총 매출이 13.16조위안이며 공업생산가치가 2.74조위안이 증가하여 전국 공업생산가치의 12.4%를 차지하고 있음.
-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학기술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둘째, 과학기술의 협력을 계속 증대시켜야 함.

2) Angel Gurría (OECD)

- 중국의 R&D 지출이 작년에 22% 증가했고, R&D 대비 GDP 비중이 1.8%이며, R&D 총지출이 세계 2위를 차지했음
- 혁신은 중국개혁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중국의 혁신은 이미 세계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중국의 새로운 과학기술의 진보가 세계발전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함.

1. Dialogue 1 : 산업 업그레이드, 혁신 시스템과 지적재산권 보호

1) Miao Wei (공신부 부장)

- 공업은 산업발전방식 전환의 핵심으로 공업화가 매우 중요함. 공업화를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하며 1) 개방식 혁신 2) 기업의 혁신을 지원 3)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혁신을 추구해야 함.
- 이밖에도 기술 표준, 지적 재산권 지원도 필요함. 기술혁신의 업그레이드는 거시경제정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매우 중요함.

2. Dialogue 2 : 녹색성장 로드맵

1) Zhou Shengxian (환경보호부 부장)

- 환경오염 문제는 매우 중요함.
- 1) 공업화,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와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2) 신흥산업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성장하는 것으로 것으로 중국정부가 내세우는 녹색성장이 대표적인 예임.
- 3) 기술혁신을 추구하면서 환경보호를 하는 전략. 국무원이 발표한 환경보호에 대한 계획은 이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 4) 중국 환경보호에 목표를 조정해야 함.

3. Dialogue 3 : 지역협력 강화, 발전을 위한 협력 촉진

- 각기 자기 지역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현황, 특징을 제시했음.

1) Guo Jinlong (북경시장)

- 북경은 중국의 수도로 중국 최고의 교육, 인재,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서비스업이 75.7%를 차지하고 있고, 중관촌 건설을 통해서 국가문화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공업화, 도시화,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음.

2) Luo Qinjian (Shanxi Province)

- 산시성은 작년 14%의 경제성장율을 이루며 성장률 1위이며 서부발전의 중심임. 중앙정부의 서부대개발 전략은 지역경제에 활기를 가져다 주고 있으며 산시성은 역사, 문화와 현대과학기술이 결합된 지역으로 발전하려고 함. 중국의 중심을 차지하는 지리적인 요건과 교통이 발달하고 내수확대정책에 따라서 물류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큼. 산시성은 교육여건이 좋으며 특히 항공기술이 매우 발달되어 있음.

3) Han Yongwen (Hunan Province)

- 중국굴기전략으로 주변의 주장 삼각지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후난성의 기초 인프라를 개선하여 주장 삼각지의 수출기업들을 유인하여 제조업 기지로 변모하려고 함. 동시에 장강 삼각지의 노동집약적 산업들도 이전하기를 바라며, 베이징과 상하이의 금융자본들도 투자하기를 희망함.